

# 전남도, 780억 규모 민생 활력 대책 속도낸다

## 민선 8기 후반기 2년 '민생안정' 최우선 행정력 집중 중소·소상공인·농축산어업인·저소득층 목소리 반영

전남도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780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선제 추진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달 18일 민생경제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내수 부진까지 겹쳐 민생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도민 삶에 깊숙이 들어가 어려

움을 세심히 살피고 든든한 지원사책 마련을 주문했다.

전남도는 다양한 계층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농축산어업인 경영 안정 대책을 비롯해 경제 위기로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정책 등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 사업 32건을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인 경영 안정과 금융비

용 경감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1천억원 늘린 5천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 만기 도래 정책자금의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하며 최대 35%의 이차차액을 지원해 실제 부담률을 1%대로 완화하기로 했다.

보증 만료된 폐업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하기 위한 10억원과, 전남신보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 기반 연장 시 보증수수료 0.7%를 인하하기 위해 5억원씩을 각각 지원한다.

해상운임비 상승 등으로 어려운 수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케팅 비용 3억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생·공공배달 앱 할인쿠폰과 홍보 비용 6억원, 운송 원가와 이용객 감소로 이종고를 겪는 시외버스 업체 특별 재정지원 18억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또 사료 가격 상승과 소 가격 하락으로 경영난에 처한 30마리 이하 규모 한우 농가 1만호에 배합사료 값 상승분의 50%를 보전하기 위해 63억원을 지원한다. 고유가와 선원 구입난,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금어기 1개월치 어선 및 어업인 보험료

원한다.

유류비·인건비·기자재비 등 치솟는 물가로 힘든 농어업인을 위해 농어업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귀어 청년 유입 증가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행 50세에서 55세로 늘리며, 지원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자율도 1.5%에서 1%로 하향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키로 했다.

국도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전남 657가구에 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6억5천만 원을 지원하고, 쌀값 하락과 전기·가스요

금 등 공공요금 인상 상황을 살피면서 추가 맞춤형 민생지원 정책을 적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도정 운영의 중심은 도민이고 최우선 목표는 민생 안정에 있다"며 "민선 8기 후반기는 서민 경제를 살리는 민생 안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내게 힘이 되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2022년부터 계속되는 국내외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유가·고물가 상황에 도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기조로 총 5차에 걸쳐 2천556억원의 민생안정 긴급대책을 시행했다. /김재정기자



민선8기 2주년-구청장이 씁니다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아 1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함께 만드는 행복북구 만들기-구청장이 씁니다'에서 문인 청정이 1회용품 없는 청사를 위해 다용도기인 텀블러를 들고 온 직원들에게 커피와 쿠키를 나눠주고 있다. /김영근기자

## 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500억 지원

광주시는 1일 "경영 위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하반기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상반기 1천억원, 하반기 500억원 등 총 1천5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억원 늘었으며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광주시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총 50억여원을 투입,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금리 이자 3-4%를 지원한다. 신용평점 중·저신용자는 1%를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 대상

자는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전 업종이다. 대출 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신용점수 350점 이상의 소상공인은 이날 협약한 은행에서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단기코팩스+1.60-1.70% 또는 CD금리(91일)+0.60-1.70%이며, 보증수수료는 연 0.7%다.

이번 특례보증의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한도 소진 때까지다. /박성강기자

## 연근해 어선·낚시어선 안전 점검

전남도는 1일 "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16일까지 연근해 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엔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해경, 전남도,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구명·기판·전기·소방·무선설비 구비 여부와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어선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도 병행한다.

특히 기관실 내 통풍 여부와 인화성 물질 관리 상태, 조업 시 어구 사용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 등을 점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양시원기자

# 보행자 감지 파란색 신호 5초간 자동 연장

## 광주시, '스마트횡단보도' 23곳 설치 운영 본격화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할 경우 파란색 보행 신호등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횡단보도 시스템이 광주에 설치됐다.

광주시는 1일 "광주경찰청과 함께 '지능형교통체계(ITS) 스마트 횡단보도'를 구축, 지난달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19억원 투입, 노인·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지역 22개소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은 인공지능

(AI) 기술을 접목한 '보행 신호 자동 연장시스템'이다.

신호등 기둥에 부착된 AI 카메라가 보행자를 감지해 길을 건널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신호 시간을 최대 5초간 자동으로 연장해주는 시스템이다.

또 AI 감지를 통해 운전자에게는 전광판을 통한 보행자 안내, 보행자에게는 위험과 횡단 안내 방송 멘트가 나오는 기능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광주시가 추진했던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이 교통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호시간 최적화를 통해 교통 흐름 개선에 역점을 뒀다면, 스마트 횡단보도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



스마트횡단보도 개념도. 행 환경 조성하고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임찬혁 교통정책과장은 "안전하고 단절 없는 보행자 중심 교통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며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시민 불편을 줄이고 교통 안전은 높이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형 교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강기자

## ICT 활용 취약지 만성질환 관리 강화

### 도, 고혈압·당뇨 등 스마트폰 앱 관리 실증연구 참여

전남도는 1일 "의료취약지의 고혈압·당뇨 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진행되는 ICT 기반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2차년도 실증 연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ICT 기반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혈압·혈당 수치 모니터링, 영양·운동·간호 영역별 상담 월 1회, 월간 보고서, 매일 건강

생활 실천 미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의료 취약지역 만성질환자가 비대면으로 건강관리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함으로써 공간·시간·경제적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어 효과적이다.

특히 올해 2차년도 실증연구에서는 의원과 보건소가 협업하는 모델이 새롭게 추가됐다.

참여 기관은 전국 22개소 중 전남이 1

0개소(45%)로 전국에서 참여율이 가장 높다.

지난 4월부터 전남은 도내 고혈압·당뇨 환자 175명에게 혈압기 150대와 혈당기 92대를 지원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호응을 얻고 있다.

문관욱 건강증진과장은 "전남은 최근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로 강화하는 등 보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올해 진행한 실증연구의 효과성이 입증되면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자**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군 브로커**